



고속도로 안전운전

이 흥 로

교통안전공단 교육원장

1. 머리말

고속도로는 일반도로와 도로구조와 안전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일반도로와 똑같은 생각으로 운전한다면 대형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장시간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므로 감각저하운행과 추중운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고속도로 운전을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있어 주행하기 쉽고 단조롭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가 간혹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조로운 줄음을 유발하여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2. 고속도로 안전수칙

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의 준비사항

- (1)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미리 주행 계획을 세운다.
- (2) 차량끼리 만나는 장소는 적당한 주차장(휴게소)을 이용한다.
- (3) 타이어의 공기압과 연료는 미리 가까운 주차장에서 체크한다.

(4) 차의 정비는 평소에 해 두어야 하며 출발 전날 분해정비 등은 삼간다.

(5) 운전자는 출발할 때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나. 진입로와 본선 유입

(1) 톨게이트로부터 진입로까지의 구간은 과속하지 말고 행선로의 안내표지를 확인해야 한다.

(2) 진입로는 곡선이 심하므로 저속으로 운행해야 한다.

(3) 진입로에서 추월은 사고를 자초한다.

(4) 진입로에서 가속차선으로 진입할 때에는 본선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진입로에서 대형차가 선행하고 있으면 본선 유입의 타이밍을 잘 생각하여 속도를 조절,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6) 가속차선에서 본선으로 유입할 때에는 가속차선을 반 이상 달린 후부터 들어가도록 한다.

(7) 본선에 유입한 직후에는 당분간 자기 차의 상태를 살피면서 여유를 가지고 달리도록 한다.

다. 고속도로 주행

(1) 주행중에는 일정한 속도로 차들의 흐름을 타고 달리는 것이 안전하며 속도는 80km/h 이상을 기준으로 달리는 것이 좋다.

(2) 주행차선만을 계속 달릴 때에는 차간거리를 여유있게 유지하며 2~3대 앞차의 거동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주행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인터체인지나 주차구역으로부터 본선에 합류해 오는 차가 보였을 때에는 추월차선이 비어 있을 경우 재빨리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4) 인터체인지의 가속차선에서 대형차와 승용차가 줄지어 합류하려고 할 때에는 원활한 합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5) 본선 주행중에 사고나 공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6) 터널 안에서는 조명상태라도 전조등을 켜다.

(7) 오르막길이 연속되어 있는 곳에서는 속도가 느린 차는 등판차선을 이용한다.

라. 추월(앞지르기)

(1) 추월할 때에는 반드시 후방의 차량 상황을 확인한 후 추월행동을 시작하는 습관을 들인다.

(2) 추월차선으로 나올 때에는 깜박이를 작동한 다음 핸들조작이 끝날 때까지 약 7~8초 동안은 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원활한 추월이 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선행차를 추월하기 위해 주행차선에서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고 있을 때에 그 차가 갑자기 추월차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하면서 추월해야 한다.

(5) 앞차를 따라붙은 다음 그 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추월차선에서 접근해오는 후속 차가 있을 때에는 재빨리 감속하여 그 차를 앞으로 통과시킨 다음에 추월하도록 한다.

(6) 추월차선을 자기보다 느린 차가 달리고 있어도 주행차선을 사용하여 오른쪽에서 단숨에 추월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가 매우 많다.

(7) 자기 차가 추월당할 때 추월하는 차와의 속도 차가 적을 때에는 내 차의 속도를 조절하여 추월이 순조롭게 완료되도록 협력한다.

마. 유출

(1)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에는 속도계를 보면서 감속차선을 모두 사용하여 40km/h까지 유연하게 감속한다.

(2) 주차구역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미리 헤아려서 적어도 500m 앞까지는 가장 우측 차선으로 옮겨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후속차가 있으면 빨리 깜박이를 점멸시켜 그 뜻을 전하도록 한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고속도로의 특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h 이상 달리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될 위험한 상황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장시간 고속으로 운전을 해야 한다면 사전에 자동차의 점검, 운행계획을 세워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예방해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안전수칙을 잘 지켜서 운전하는 것만이 고속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